

출생 신고가 안된 아이들의 소금밥

2024/03/27 박재현/정은실 선교사 드림

17세 케이넬과 14세 다니엘은 형제입니다. 그들은 출생 신고가 안된 아이들입니다. 5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쓰레기를 주웠고 어머니는 정신박약입니다. 당연히 학교도 다닌 적이 없고 글도 모릅니다. 가정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러하니 동네 또래들이 시키는 일 해주고 자그만거 하나 얻고 삽니다. 6개월 동안 지켜보고 친해져 이제는 이곳 꿈들의 집에서 자고 저를 도우며 용돈도 받습니다. 누군가가 케이넬이 저녁 밥을 음료수로 떼운다고 말해 줘 쌀 한봉지를 가져 왔더니 고맙다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냥 흰쌀밥에 길거리에서 파는 치즈였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춘 흰쌀밥이랍니다...



케이넬과 다니엘 형제. 그들의 소금밥



13세 장남 호세의 3남1녀 형제입니다. 친구들도 사진 좋아해 몰려 왔습니다. 2년전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강도 당하며 총을 맞고 사망해, 어머니와 살지만 전기연결도 못해 양철판 집에 컴컴하게 삽니다. 호세는 장남의 책임감 때문인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강한 눈빛이 항상 보입니다.

사진을 싫어하는 15세 라울도 있습니다. 막노동을 하는 더러운 자신의 모습 촬영을 싫어합니다. 베네수엘라 난민인데 밤에 공사장 한켠에서 자다가 이제는 이곳 학교 공사 일합니다.

위의 3형제/아이들은 기숙통합시설 '기쁨의 집'에서 1개 방씩 3개 방을 나눠 지내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지켜본 아이들이나 그들 스스로의 노력을 격려하면서, 상황에 맞는 도움을 조금씩 주며 조금씩 나아지는 환경을 만들어 스스로에게 성취감을 주고자 기다리는 중입니다.



연령대별로 나눠 수업하는 '꿈들의 집' 어린이들. 산수와 스페인어를 배웁니다.

깨끗이 씻겨 옷을 갈아 입혀 보내는 이 학생들은 교육에 관심있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최저학년 아이들. 여태껏 누군가에게서 받은 선물 중 거의 최고가일 것입니다. 일본 유통회사 제품이긴 하나 시장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 메이커 가방 들고서 자랑하는게 이 가방을 후원한 교회/후원자의 마음이라 생각했습니다.

최저학년 아이들. 상으로 받은 가방을 들고 좋아도 하고 부끄러워도 합니다. 가방 안에는 펜, 여러 색연필, 지우개, 연필 깎기, 공책, 병원 출입용 마스크, 모래바람 방어 머플러 등이 있습니다.



미국 선교단체에서 컨테이너로 온 6대 영양소가 포함된 영양 쌀. 베네수엘라로 대부분 가지만 '꿈들의 집'도 포함되어 감사하네요. 올 한해 매주 수업 때마다 먹을 100박스 영양 쌀입니다. 누가 어떻게 요리/배식/정리함이 적당하고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지하 3미터 물탱크와 2미터하수조.

4층 건축이 가능한 기초/철근/상층 공사

선교기관 Dr...와 이랜드의 AM이 그룹홈(보육원) 헌금을 전달해 줘 예비당을 건축한 것이 결국 기숙보육시설 '기쁨의 집' 건축을 하기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곳에 거지처럼 사는 수천명의 아이들 중 주님 앞에 부름받아 찾아 온 아이들이 안식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영락)을 되찾는 집이 되기를 바라며 계속 건축합니다.

선교지에서 현지인 교단과 교단임원들과 동역하며 곳곳을 다니는 사역이 선교사들에서는 참 멋진 사역인데, 저는 이곳 빈민촌/난민촌에 들어오게 된 것이 결정적으로 길이 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모여들고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하는 일에 깊은 감사와 감동이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교회들과 교인들의 사랑과 헌금이 바람직하게 사용되어지는 곳에 살면서 사역한다는 것이 기쁘고 떳떳합니다.

(20달러가격)가방 시상식을 하고 난 후 3명의 자녀가 모두 선물을 받은 어머니는 길가에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총 60달러나 받은것)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여러 부모들이 찾아와 입학 문의를 했습니다. 어두운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 모습을 보면 제 가슴도 어느새 벅칩니다.

선교지의 오지에는 아직 아이들을 많이 낳고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교육에는 무관심합니다. 가난이 세습되고 성인이 되어 구원을 받아도 삶은 변화 적습니다. 오지의 중심도시(관문도시선교)는 생각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오지에는 대도시와 비교 안되는 적은 경비로 선교사역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지에는 선교사가 거의 없습니다.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 40년 만에 나타난 외국인 선교사입니다. 동양인으로는 최초이며 거주하는 선교사는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어린 양들이 제 발로 찾아옵니다. 저와 함께 그들이 잘 자라도록 기도하고 밀어주고 당겨줍니다. 이들 중에 단 한명만이라도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도록 기도합니다...

< 기도 제목 >

- 1.길고 깊은 기도 속에 주님 인도하심 잘 따르도록
- 2.종교비자가 허락되도록- 비자 만료로 현지은행 계좌가 닫혀져 이런저런 압박이 많습니다.
- 3.'꿈들의 집'- 수업과 영양쌀 급식 프로그램 잘 운영하도록
- 4.건축/수업- 현지인 동역자 잘 만나 함께 일 잘하도록
- 5.기숙보육시설 '기쁨의 집' 지혜롭게 건축/운영하도록
- 6.총 강도, 위험 운전, 질병 등으로부터 보호받도록
- 7.후원 교회/기관의 평안, 후원 개인의 건강/재정/자녀/진로에 주님 함께 하시도록